

고객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문화백화점' 「현대백화점 울산점」

봄꽃정원 꾸미기 이벤트

이번 탐방은 부산지부의 추천으로 울산 변화가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울산점을 방문하여, 시설지원파트의 김현환 대리와 김용기 방화관리자를 만나보았다. 정문 앞에 색색의 꽃들로 정원을 장식하여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현대백화점 울산점의, 방화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자.

글 | 이미숙 협회 경영기획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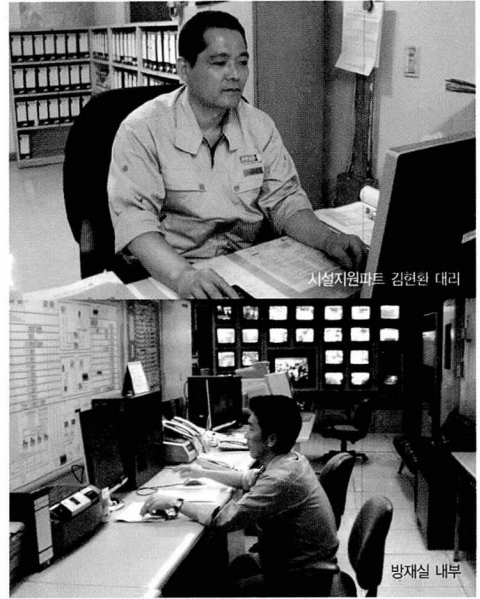
고객의 행복과 감동을 최우선으로

현대백화점의 기업이념은 '고객의 행복과 주주 및 구성원들의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창조하자'이다. 즉 고객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미래 창조를 목표로, 기업의 주주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함으로써 고객과 주주들로부터 사랑받고 기쁨을 주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백화점의 개념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생활이 향상되는 곳'으로 정의하고, 도시문화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21세기 신생활 문화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문화백화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지상 13층, 지하 7층, 연면적 76,000㎡ 규모로 1997년 준공된 현대백화점 울산점은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울산시의 '생태 및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변신 노력에 부합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생태와 문화도시'를 테마로 봄꽃정원 꾸미기, 장미 및 국화를 이용한 건물 장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울산 시민들을 위해 전시회 및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수시로 개최하여 문화백화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시설지원파트 김현환 대리

방재실 내부

이밖에도 이동 및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 후원 활동, 헌혈 행사, 깨끗하고 청결한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 활동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철저한 직원 안전교육

현대백화점 울산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지원파트는 총 3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연간 종합 재난예방계획을 수립한 후, 고객 대피 및 소화기기 작동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주간·월간·분기 단위로 전 직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 특히 매달 15일을 소방 훈련의 날로 정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훈련하고 있어 그 효과가 높으며, 다가오는 5월 15일에는 소방서와의 합동 훈련도 계획하고 있다.

지점 파트장들의 월별 순회 점검으로 안전효과 만점

현대백화점의 방화관리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지점별 시설관리파트장이 참가하는 월별회의이다. 총 11개의 지점을 매달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이 회의에서는 시설물·기술·운영·자재 부문별로 팀을 구성하여 해당 지점을 분

야별로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김현환 대리는 “이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도 발견되고 해결책도 도출되며, 개선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물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신기술 및 신소재, 관련 법 개정 등에 관한 자료와 각 지점별 시설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의 초청 강연도 실시하여 월별회의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시 문화의 인큐베이터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그동안 경주해온 ‘문화백화점’으로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고객의 안전과 삶의 풍요로움을 실현하고 아울러 고객과 함께하는 Community Cent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내 제1의 백화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



현대백화점 울산점의 소방훈련 장면